李-朴 정면충돌 위기

한나라 공천시기 갈등 고조…총선 정국 변수 부상

李측 "서두를 필요 없어" 朴측 "앉아서 당할 수야"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이명박 당선자 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면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한나라당 내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내분 결과에 따라 4월 총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 아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신년하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3년 당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정상적 절차에 따라 (공천을) 했다"면서 지난 17대 총선과 같이 1월 중순에 공천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1월 공천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당선자 측에서 '피해의식'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 그쪽이 피해의식인 것 같다"며 "피해의식 정도가 아니라 피해망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 전 대표 최측근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당선인 측이)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공천 연기를 주장하는데 이유가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 공천 심사를 하면 2월부터 1차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당선인 측이 '물갈이'에 나설 것이란 설과 관련, "우리 쪽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면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 측의 김무성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갈이론'과 관련,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을 지킨 동료에 대해 물갈이라는 말로 인격모욕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3월 공천'이라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가운데 박 전 대표 측의 비판에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이방호 사무총장은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신당'이 오는 3월 중순에야 공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만 공천을 서두르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며 "3월 초순 정도에 공천을 완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강재섭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지역구 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사실상 3월 공천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3월 공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 당선자 측이 물러서거나 아니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어 4월 총선 정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昌측 "親朴들 어쩌나 보자" 한나라 '공천 갈등' 촉각

한나라당 내에서 새해 벽두부터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과 친박(親朴-친 박근혜)측간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이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지난 2일 이 당선인의 '취임후 공천' 시사 발언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친박 일각에서 "당선인측이 계속 모른 척 하면 우리는 살 길을 개척하는 수 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일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 이는 박 전 대표 및 친박측의 향후 행보와 이 전 총재가 추진하는 보수신당의 미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아성'인 대구·경북(TK)은 물론 영남권 전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지지의원들과 함께 탈당해 보수신당에 합류하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보수신당은 충청과 영남을 기반으로 정국에 무시 못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높은 대중적 인기를 자랑하는 박 전 대표가 신당에 합류할 경우 '이회창-박근혜' 양축을 통해 4.9 총선에서 '제1 야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배어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에 남아 있더라도 이 당선인측이 공언하고 있는 '물갈이'에 위협을 느낀 친박 의원 일부가 탈당, 보수신당의 외연을 넓혀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 전 총재측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이명박-박근혜' 회동에서 이 당선인이 공천은 제 때 하겠다고 했다가 '식언'했다고 주장하는 박 전 대표의 불만을 십분 이해한다며 '구애'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전 총재측은 "한나라당 내 일일 뿐이며 창당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남의 불행만 바라고 그에 따른 '이삭줍기'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총재측에서는 한나라당 내부의 틈을 노려 자연스럽게 친박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수 받을때 떠나려 한다"

'원조 보수' 김용갑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밀양·창녕)은 3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3선 중진인 김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는 것 보다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난날 정부에 있을 때부터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이제 박수칠 때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국회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가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서 싸워왔고 정치권에서도 소신껏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원조보수' 김용갑은 제 소임을 마치고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혹시 저로 인해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일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톨릭-이슬람 2~3월중 회담

대표자 3명 로마 방문

오랜 반목의 역사를 이어온 가톨릭과 이슬람의 대표자들이 올해 봄 공식적인 회담을 갖고 종교간 화해를 모색한다. 바티칸의 '종교간 대화를 위한 주교협의회(PCID)' 대표인 장-루이 토랑 추기경은 최근 교황청 기관지와 회견에서 두 종교 대표자간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이슬람 지도자 3명이 오는 2월이나 3월 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랑 추기경은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올해 봄에 열릴 것이라고만 밝힌 뒤 "이슬람 대표자들과 회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 세계 이슬람 지도자 138명은 지난해 10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다른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만남을 요청했고, 교황은 공개적으로 초청하겠다며 화답했다. 토랑 추기경은 이번 회담에서는 개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교간 대화, 젊은이들에 대한 관용 교육 등 3가지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2006년 9월 독일 방문 중 이슬람의 가르침을 폭력과 연관짓는 발언으로 이슬람 세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이후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관계 개선을 꾀해 왔다. /연합뉴스

민주, 힐러리-오바마 박빙 접전

美대선 아이오와 결전…공화 허커비·롬니 혼전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 주요 후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백중세로 나타나 승패를 점치기 힘든 접전 양상이 거듭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전이다. 로이터통신과 C-스팬, 조그비가 공동 실시해 2일 발표한 아이오와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각각 28%의 지지율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26%로 오차범위(±3.3%) 내의 혼전이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에선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28%)와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26%)가 역시 오차범위 내의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프레드 톰슨 전 상원의원은 각각 12% 지지에 그쳤다.

코커스 참석의사를 밝힌 민주당 933명, 공화당 907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는 후보들 간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 펼쳐지고 있음을 거듭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사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CNN, 폭스 뉴스 등 미 주요 방송들은 아이오와 현장을 실시간대로 보도하면서 공화, 민주 양당 후보들 간 막바지 총력전 양상을 전했다. /연합뉴스

케냐 종족 갈등 사망자 328명으로 늘어

지난달 27일 실시된 케냐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후보들이 속한 종족간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되면서 사망자가 3일 현재 최소 328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음을 공언한 케냐 야당의 라일라 오딩가 대선 후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미 10만명 이상의 난민을 야기한 이번 충돌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역시 이번 충돌의 책임은 오딩가 측에 있다며 시위를 불허하고 적극적 진압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P통신은 종족간 무력 충돌 이후 수도 나이로비에서도 칼 등 연장을 손에 쥔 키쿠유족 젊은이들이 부족 경계에서 경비에 나서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양측간 대립이 인종청소 수준의 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케냐 적십자사에 따르면 1일 수도 북서쪽으로 300km 가량 떨어진 마을의 교회가 폭도들에 의해 불에 탔으며 그 잔해에서 17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선거 이후 오딩가 후보의 기반인 루오족과 키바키 대통령의 기반인 키쿠유족 사이의 무력 충돌이 각지에서 빈발함에 따라 사망자가 최소 328명에 이를 것이라고 AFP 통신은 추산했다.

이 같이 케냐 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면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